

취추바이의 ‘프로대중문예’에 관한 소고

李賢馥*

<목 차>

1. 서론
2. 취추바이의 ‘프로대중문예’의 의의
3. ‘프로대중문예’의 내재적 문제
4. 결론

1. 서론

“마르크스주의는 근대화된 서구를 마주한 중국에서 근대성을 상상하고 구성하는 대안적 방법을 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모두 공격했다. 우선 변화에 관한 이데올로기로써 중국 혁명가들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중국에 그 자체의 근대성의 역사를 가져 온 사회혁명을 이끌어냈다. 바로 중국 근대성의 과정에서 중국 마르크스주의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 마르크스주의가, 처음부터, 혁명 기획에 있어 문화적 차원과 미적 차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천두슈(陳獨秀)와 리다자오(李大釗)로부터 취추바이(瞿秋白)와 마오쩌둥(毛澤東)에 이르기까지 5·4운동의 주요 인물들,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지도자들은 미적이고 예술적인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중국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가정을 받아들였으며, 유럽 계몽주의 사상, 특히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이상주의를 상속받았다.”¹⁾ 중국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류캉의 관점

* 江原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中語中文學專攻 助教授(scenotofree@kangwon.ac.kr).

은 중국 마르크스주의란 중국혁명에 있어 이념적 대안으로 수용되었고, 중국에서 근대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전복의 이념적 무기가 되었다는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즉, 중국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에는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와는 다른 근대를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대안적 근대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서구 근대 기획과 다른 마르크스주의적 근대 기획이란 서구 근대의 주요 형식이었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 즉 주체를 호명²⁾하는 것과 관련 있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내부에서 그것을 뒤엎을 존재로서 무산계급과 피억압 민족을 호명하는 것은 중국 마르크스주의적 근대 기획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 호명된 주체들은 현행 체제에서 침탈당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 자신의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뒤엎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서구 근대 기획에서 타자화되고 주변화되었던 이들 주체가 처했던 192,30년대 중국의 객관적 상황은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제도 그리고 사회체제 면에서 서구에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문화와 예술은 이들 혁명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했다.

서구 근대성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주체 및 그

1) Liu Kang, *Aesthetics and Marx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0), 33쪽.

2) 호명(interpellation)은 본래 알튀세르가 부르주아계급의 지배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해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부르주아는 자본주의 사회 제도에서 호명을 통해 개인 주체들을 부르주아 권력에 연속시킨다.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응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다. 주체가 부름에 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인지(reconnaissance)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인지를 통해 주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혼동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주체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알튀세르는 이처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듯이 보이는 주체가 실은 종속적인 존재임을 밝힌 바 있다.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서울: 숲, 1994), 115-121쪽 참조. 사실 중국에서도 중국공산당과 좌익은 (사회주의)국가의 수립과 계급독재를 지향하면서,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도시빈민계급 등 주체를 호명하고 이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취해내려 했다. 알튀세르는 호명을 부르주아의 지배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말했으나, 국가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었을 때, 좌익진영의 실천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의 실천 방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념으로서의 중국 마르크스주의와 현실에서의 사회주의적 실천들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류캉의 앞선 관점으로 본다면,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유럽 계몽주의 사상, 즉 보편주의와 이상주의의 상속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와 상충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서구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승과 수용인 셈이다. 그러므로 중국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혁명은 서구 근대성의 대안이라는 내용을 지니고 있었지만, 반대로 그 속에는 서구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온존할 가능성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탈식민주의의 주요 이론가인 미놀로는 서구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곧 식민성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식민성으로서의 근대성은 서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변화된 이들에게 내재화시키고, 이러한 관점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5세기 이래 서구는 자신들을 중심에 놓고, 타자들을 주변화했다고 보았다. 서구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중심의 단일한 지배가 관철되는 세계를 구축하고 타자를 끊임없이 주변으로 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화된 이들은 중심과 동일한 논리를 따라 중심이 구축한 구조와 세계를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다.³⁾ 그 이면에서 주변으로 배제된 이들은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잃고,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배자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육체에 내면화되면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이 다시 그러한 체계를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어느 순간 타자화된 이들은 중심의 논리를 온존시키는 동조자 내지 협조자가 되어버린다.

만약 중국 혁명을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중국이

3) 이 같은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미놀로의 이론을 비롯한 탈식민이론의 중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탈식민이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를 비롯, 대부분의 탈식민이론은 서구가 어떻게 비서구를 타자화, 주변화시켰는지에 주목하고 비서구 세계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영향에 대해 비판한다. 이 중 미놀로의 주장은 식민성을 서구 근대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월터 D. 미놀로, 김영주·배윤기·하상복 역,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서울: 현암사, 2018), 66-99쪽 참조.

혁명을 통해 단순히 '세계 속'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방해를 이겨내고 존재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대체하고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돼서도 안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혁명을 통해 서구 근대성에 내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서구 근대성에 내재한 문제란 미놀로가 식민성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에 의해 주변화된 존재들이 서구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기를 멈추고, 그들 각자의 삶을 세계 속에 드러내는 것, 곧 서구가 강제한, 그리하여 어느새 내면화되어버린 식민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서구 근대성을 극복했다 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류강은 193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적 실천에서 대안적 근대성(alternative modernity)을 읽어내려고 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1920년대 말에 제기된 혁명문학논쟁, 1930년대 초반 좌익작가연맹(이하 좌련)의 결성과 문예대중화논쟁 등 일련의 문화와 예술 방면에서의 모색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자산계급의 배신과 중국 혁명의 성격 변화라는 정치적 상황하에서, 5·4이래 진행되어왔던 중국의 근대 기획과 실천을 반성하고 그것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혁명문학논쟁'과 '문예대중화논쟁'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중국에서 서구에 의해 이식된 근대와는 다른 근대를 수행할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빈민, 병사 등 소위 무산대중을 분명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는 근대 구축의 과정에서 타자화되었던 이들이 주체로 호명되고 주류적 논리 및 사고와는 다른, 타자화된 이들의 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그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은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시각과는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주체가 호명된다. 그리고 호명된 주체는 자신의 시각과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곧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혁명을 실행할 정당성과 기회를 부여받는다. 중국에서 공산당과 좌익이 전개했던 사회혁명은 현대 중국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관계 속에서

타자화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등 피지배자로서의 대중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혁명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이 경우 그것은 정치 권력의 획득을 위한 싸움일 뿐이며, 그 가운데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종속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호명된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중은 해방되지 못한 채, 호명하는 권력의 이데올로기적인 지배에 종속되게 된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노동자의 주변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⁴⁾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혁명 역사를 통해 주류의 지위를 차지했던 자산계급과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그로부터 타자화된 노동자계급 등 인민대중의 이해를 대표하고 보호하게 됐다 했지만, 오늘날 정작 이들은 정치 및 경제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호명됐던 이들의 해방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종속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근대성의 문제는 극복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안적 근대성으로서의 당시 중국 사회주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야기한다.

중국 혁명의 역사 속에서 혁명문학과 대중문제에 대한 논의 등과 같은 실천들을 통해 주변화되었던 이들이 역사의 주체로 호명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요소를 들여와 기존의 체제와 결합시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중국의 역사적 실천 바깥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깥이 아닌 중국의 사회주의혁명의 실천 과정에 그 원인이 내재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실천을 다시 검토하는 가운데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일환으로 192,30년대의 좌익 실천가들의 사유와 실천, 그 가운데

4) 장윤미, <노동자 조직의 역사와 변화>,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서울: 책과 함께, 2021), 198쪽 참조.

서도 취추바이의 논의를 통해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초기 중국 사회주의 실천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박자영은 혁명문학논쟁이 혁명문학의 주체로서 무산계급을 소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식인계급을 소환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⁵⁾ 김진공은 대중문화논쟁이 '상상된 대중'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 이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체의 호명이라는 것이 주체 스스로가 아닌 호명자⁷⁾에 의한 행위이고 그 주체의 행위의 정당성과 기획역시 호명자의 의도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주체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호명자의 의도로 상상되고 기획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안적 근대기획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주의적 관점과 주장 내에 이미 중심이 그 밖의 존재를 주변화하고 타자화했던 서구 근대성의 식민성의 논리가 극복되지 못한 채 내재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는 본고에서 살피려는 당시 사회주의자이자 혁명주체 형성의 문제가 문화와 관계 있다 보았던 취추바이에게서도 찾아진다.

본고에서 살피려는 취추바이는 1920년대 초반 소비에트러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사회주의국가에 호명된 주체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에게 있어 문예와 문화 혁명이 갖는 의미를 탐색했었다. 그는 실제 사회주의 국가 내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 하에 호명되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목격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그는 중국에서 대안적 근대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와 실천의 문제에 대한 심화된 고민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것은 혁명문학논쟁과 대중문예논쟁에서의 취추바이의 고민과 실천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형성

5) 박자영, <혁명, 노동, 지식 — 1920년대 상하이의 혁명문학 논쟁 재론>, 《사이間SAI》 16호(2014).

6) 김진공, <현대 중국의 文藝大衆化를 보는 관점에 대한 재검토>, 《中國文學》 第42輯(2004).

7) 호명자는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지배계급이나 정치세력 등 호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를 말한다. 알튀세르는 구체적인 존재가 아닌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된 호명자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호명은 이데올로기적 지배이면서, 구체적인 개체나 세력의 구체적인 지배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만 말한다면 자칫 호명자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가 은폐될 수 있다.

된 취추바이의 사유는 프로대중문예를 통해 호명되는 주체, 그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근대,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의 문제와 더불어 중국 혁명문예 및 혁명에 내재한 가능성과 그것의 문제 역시 함께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취추바이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그의 프로대중문예(혁명적 대중문예)의 주장에 내재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적 실천 내에 중국의 사회주의 근대성이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과 극복이 되지 못했던 지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주의적인 근대 기획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판적 검토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취추바이는 5·4 이래의 서구화를 좇던 문예뿐 아니라, 좌익문예에 내재한 문제 역시 지적했기 때문이다.

2. 취추바이의 '프로대중문예'의 의의

취추바이는 문예대중화의 문제를 이제까지의 중국의 근대 기획에 대한 반성 및 전환과 연관시켰다. 그는 기존의 근대 기획을 서구화(유럽화)로 정리하면서 이를 문예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호명된 주체와 그 실천의 문제를 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혁명 혹은 사회주의운동의 주체로서 프로대중을 제기하고, 이 프로대중의 실천의 수단을 프로대중문예(普洛大衆文藝), 혁명적 대중문예(革命的大衆文藝)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예의 목적과 임무, 언어와 형식 등도 언급했다.

취추바이는 1920년대 초반 소비에트러시아를 직접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중국에서 자신의 임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임을 자각했다. 취추바이는 피억압계급이 기존의 체제를 전복하고 피억압계급의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사회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각성해 자신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바꾸

는 문화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서구와 같은 물질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체가 주관적 의지에 의지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해야 중국이 다음의 역사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화혁명은 브로커주의(市儈主義)로 명명한 서구 자본주의 문화와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한 중국의 봉건 문화 모두를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⁸⁾ 이것은 당시 그가 이미 봉건뿐 아니라 서구적 근대 역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중국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문화혁명을 이끌 주체였다. 취추바이는 1920년대 초반부터 서구적 근대의 극복과 함께 그것을 실행할 주체를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농민과 도시빈민 등 '대중'으로 확장해 사고하고 있었다.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국가 건설과 수호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농민 등 기타 계급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소비에트러시아 내 다양한 민족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이끄는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만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호명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성한 주체들은 생활 속에서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받아들여 생활할 것을 요구받았다.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러시아 내 브로커주의와 봉건주의라는 서구적 근대 및 동방적 전통의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대신해 사회주의라는 다른 세계관과 문화를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즉, 호명된 주체인 대중의 사고와 방식을 바꾸는 문화혁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⁹⁾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에서의 경험 속에서 옛 봉건과 서구(자본주의적)적 근대와는 다른 근대를 꿈꾸는 한편, 이를 실행할 주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를 확인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문예대중화논쟁에 참여하면서 형성한 프로대중문예에 관한 기획과 실천으로 이어졌다.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에서 문화교육과 문화예술이 중시되는 것을 목

8) 瞿秋白的《餓鄉紀程》，《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과《赤都心史》，《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 참조.

9) 같은 책 참조.

격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교육과 문화예술은 당시 내전과 경제난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보위라는 불세비키의 요구를 내면화시켜 대중이 이 같은 실천에 나서게끔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권력에 있는 이들은 노동자나 농민 등 인민의 자발성을 기대하면서도, 결국은 이들을 호명하고, 교육하려고 했다.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를 경험한 이사도라 던컨의 입을 빌려 소비에트러시아에서의 문예와 문화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던컨은 공연장을 늘리고 개방하여 혁명의 이상을 보여주는 공연을 통해 혁명의식과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인민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사도라 던컨의 주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민대중의 자발성이었다. 그런데 이 자발성은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되는 자발성이었기에, 사회주의 조국과 당의 세계관을 대중에게 내면화시켜 누군가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제한된 자발성에 불과했다.¹⁰⁾

반면, 중국은 아직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전이었기에, 이미 혁명을 통해 세계 속에서 국가로 존재하고 있던 소비에트러시아와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회주의국가가 수립되지 않고 기존 국가 체제 역시 혼란에 처해 있었기에, 대중을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부재했다. 양국 모두 대중을 동원할 필요성에서는 유사했으나, 대중에 대한 입장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소비에트러시아는 노동자계급의 전위를 표방하는 이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시행하고 있었다. 국가·사회적으로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타 계급에 지도되고 교육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인구 대부분이 농민들이었다. 노동자계급은 수적으로 미미했고, 대부분 농민계급출신이었다. 사회의 지배계급은 여전히 자산계급, 매판계급,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던 제국주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우, 이들 대중에게 내면화되는 자산계급 등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제거

10) 같은 책 참조.

하고 혁명의 이상과 같은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대중의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삶과 그 속에 녹아 있는 대중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에 익숙한 형식을 빌려 이야기해야 했다. 그래서 취추바이는 프로대중문예나 혁명적 대중문예는 옛 방식¹¹⁾을 활용하여 ‘대중’으로 지칭되는 이들의 생각과 삶을 다루는 문예로 생각했던 것이다.

문예대중화에 관한 논쟁에서 주체로서 프로대중과 그 방법으로서 프로대중문예(혁명적 대중문예)를 제시했던 취추바이는 193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많은 이들이 좇고 있던 ‘모던’, 즉 ‘근대’가 유럽화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자 했다. 그는 이 유럽화가 자본주의화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자본주의화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즉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사회관계의 구축을 의미했다. 이 같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에서 무산계급은 지배계급인 자산계급에 의해 타자화되었다. 취추바이는 중국에서의 이러한 유럽화, 자본주의화가 결국은 주체를 호명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취하는 것임을 5·4 이래 서구화한 문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취추바이는 이제껏 중국에서 추진되어 왔던 근대가 곧 유럽화임과 함께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유럽화한 문예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화 문예와 구식 문예의 구별은, 표면적으로는 형식 방면, 체제 방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럽화 문예의 큰 특징은 그것이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수많은 새로운 현상을 드러내고 있고, 수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유럽 중세기의 문예 형식도 중국의 구식 문예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유럽 중세기 식의 문예의 소멸은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중국의 자산계급 민권혁명은 좌절되고 말았고, 자산계급 민권주의의 문화혁명 역시 자산계급의 배신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말았다. ‘5·4’ 초기의 자산계급이 지향했던 신식 유럽화 문예는 본래 매판적 요소가 적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러한 매판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만 것이다. 본래 중국의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제국주의와 매판계급의 지배

11) 당시 중국은 여전히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노동자나 도시빈민 모두 이제 막 농민계급에서 나온 이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동향조직에 기댈 수밖에 없는 등 전근대적인 농민의 생활문화의 영향 하에 있었다.

하에서 자라나온 것이다. 자산계급이 공개적으로 혁명을 배반한 후 문예 전선에서, 특히 유럽화 문예에서 더욱 명료하고 더욱 격렬하게 계급분화가 일어났다. 한편에서는 자산계급의 유럽화 문예가 내용방면에서 매판의 봉건적 의식에 완전히 투항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산계급의 문예운동도 이것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왔다. 그래서 혁명적이고 무산계급적인 문예가 소위 '유럽화'에서 시작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예 혁명운동 가운데서 영도권을 획득하는 투쟁은 무산계급이 깊어져야 하는 엄중한 임무이다. 자산계급 및 모던화한 귀족 신사들, 모든 갖가지 매판들은 모두 문예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문예를 농단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낡은 우민정책을 지속시키려고 한다.¹²⁾

유럽화된 문예는 중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내의 무산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관계뿐 아니라, 봉건적 신사계급과 매판계급 역시 잔존하고 있었다. 중국은 구체제와 구세력이 온존해 있고 그들을 비호하는 제국주의의 영향이 병존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위의 언급에서 민권혁명에서의 '민'이란 외면적으로는 인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곧 자산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구 근대의 역사를 자본주의화의 역사로 본다면, 시민계급은 민권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취추바이는 민권혁명의 '민'을 시민계급, 곧 자산계급으로 국한하지 않았고, 자산계급 이외에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인민대중' 전체로 확장해 사고했다. 취추바이는 민권혁명을 이러한 인민대중이 발언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그것을 통해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관계가 구축되거나 구축의 계기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타의 계급에 대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 자산계급의 이해와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여타의 계급, 계층들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취추바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자산계

12) 瞿秋白, <歐化文藝>, 《瞿秋白選集·文學編》 第1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491-492쪽.

급은 그들의 계급적 기원과 중국 사회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민권혁명의 완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중국의 자산계급은 결국 매판계급 및 제국주의세력과 결탁했으며, 그것은 4·12 정변과 국민당의 권력 장악으로 현상됐다.

취추바이가 말한 '유럽은 중국의 구식 문예와 비슷한 중세기의 문예형식을 극복'했다는 사실은 자산계급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유럽에서는 자산계급이 봉건계급에 승리하는 민권혁명이 이루어져, 문예 역시 전근대적인 문예에서 근대적인 문예로 변화할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자산계급이 매판 및 제국주의와 결탁하고 무산계급을 배반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권혁명이 실패하고, 문예 역시 이러한 현상을 따라갔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계급 및 모던화한 귀족 신사들, 모든 갖가지 매판들의 유럽화한 문예는 물질적으로 대중을 착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대중의 사상을 갇아먹고 있었다. 즉, 중국에서는 모던화한 자산계급뿐 아니라 수구적인 매판계급과 제국주의 세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중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산계급은 근본적으로 자신 이외의 피지배계급과 이해를 달리하며,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이들을 물질양면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피지배계급을 소수의 자산계급에 상대적인 다수의 '대중'이라고 한다면, 자산계급은 근본적으로 반대증적이고, 그들의 계급적 이해와 본성에서 나오는 자산계급 문예 역시 반대증적이다. 특히 현대 중국의 자산계급은 매판과 계급적 기원이 동일하기에 이러한 성격이 가중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문예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취추바이는 5·4 이래 유럽화문예가 바로 이러한 중국의 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유럽화 문예는 근대적 자산계급과 수구적 매판계급 양자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재생산하는 수단이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취추바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폐단을 갖고 있는 유럽화 문예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혁명문예' 역시 유럽화 문예를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문예—유럽화 문예는 처음에는 완전히 자산계급 지식인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예혁명운동은 불철저하고 타협적이며 동시에 분파주의적(小團體的)이고 폐쇄주의적(關門主義)이다. 이러한 운동 안에서 일종의 새로운 유럽화 ‘문예상의 귀족주의’가 배태된다. 그것은 대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중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며, 심지어 일부러 대중을 반대하는 유럽화 문예이다. 언어문자 방면에서 일종의 반문언(5·4식 가짜 백화)을 만들고, 체제면에서는 가능한 괴팍한 모더니즘을 추구하고 있고, 제재면에서는 대부분 지식인의 ‘영혼’에서 빙빙 맴돌고 있을 뿐이다. 초기 무산문학운동도 이러한 자산계급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때문에 그것은 오래되고 광범위한 대중과 유리되어 있다. 자산계급이나 모던화한 신사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모든 폐단은 당연한 일이다.”¹³⁾

취추바이가 보기에 이제껏 중국현대문학과 문예를 주도한 자산계급 지식인들은 앞에서 말했듯 본성적으로 매관과 제국주의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예는 대중을 지배하려고 할 뿐이고, 문예는 이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지배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그들의 문예는 반대중적이다. 언어적으로 대중의 언어를 배격하고 자신들의 언어를 쓰며, 체제 면에서도 대중의 것이 아닌 지배계급의 욕망을 담아내는 낯선 근대적 양식을 썼다. 그런데 초기 무산문학운동, 곧 혁명문학 역시 자산계급의 유산을 이어받아 대중과 유리되었다. 유럽화문예는 자산계급의 분파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혁명문학은 비록 무산계급을 호명했지만, 역시 결국은 소수의 유럽화한 청년으로서 지식인들이 분파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대중과 떨어진 괴팍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취추바이가 보기에 혁명문학은 무산계급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취하지 못하고 자산계급의 유럽화문예와 같은 폐단을 보였던 것이다.

1920년대 말 중국에, 혁명문학이라는 프로문예의 어머니는 있었지만, 이 어머니가 아직 프로문예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취추바이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아직 프로문예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13) 앞의 책, 492쪽.

현재 중국은 어떤가? 프로문예의 배이는 아직 없다. 그저 프로문예의 이론과 소위 선배들만이 있을 뿐이다. 프로문예의 “어머니”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회임해야 하지만, 아직 배태하지 못했다.

프로문예의 “어머니”는 왜 아직 회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녀는 “생육을 절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 모던걸로서 파리의 유행을 배우고 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음란한 생활과 스타와 교체한다는 명성을 갈망하고 있다. 그녀는 모던화된 귀족 저택의 흠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 소위 “살롱”에 들어가 당대 명사들과 “하룻밤 자음을 겨루고자”할 뿐이다. 그녀는 그래서 허리를 꼭 조여 매고, 그래서 “스반톤” 따위의 약으로 피임을 했다. 결국, 허영과 명성, 질투와 탐욕에 일부는 “일거에 천하에 명성을 떨치겠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하는 “살롱”의 천하지, 빈민굴의 천하는 아니었다!¹⁴⁾

취추바이가 생각한 그 까닭은 프로문예의 어머니가 모던걸로서 여전히 파리의 유행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비유로 설명되고 있다. 글 속의 파리의 유행이란 곧 허영과 명성, 질투와 탐욕과 같은 것으로, 서구 자본주의가 물질적 발전의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사람들을 진작시키던 세속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속적 욕망에 현혹된 사람들은 서구적 근대, 혹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취추바이는 애초에 유럽화 문예가 이러한 파리의 유행을 좇고 있었는데, 이제 혁명문학조차도 5·4 이래 유럽화 문예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서구의 모던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라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체의 문제였다. 프로문예의 어머니(창조사, 태양사 등 혁명문학과)는 혁명의 주체로서 무산계급을 호명했지만, 무산계급을 주변화시켰던, 모던화한 귀족, 당대의 명사들, 이런 귀족이나 시민들(유럽화문인이자 5·4문인)과 함께 이들의 살롱(유럽화문예의 영역)에서 자음을 겨루고(혁명문학논쟁)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 취추바이의 판단이었다. 그가 보기에 당시의 혁명문학을 제창했던 이들도 결국 지식인인 문인들로, 이들은 봉건군벌과 자산계급의 국가 혹은 근대를 좇으며, 비대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취추바이는 유럽화 문예와 그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혁명문학의

14) 瞿秋白, <普洛大眾文藝的現實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462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대중의 세계를 상상하고 이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혁명문학은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호명했지만, 여전히 이들로 하여금 자산계급을 쫓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추바이는 자산계급과의 관계를 끊고 농민, 도시빈민, 병사 등과 같이 자산계급에 의해 주변화된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사에서 나온 지식계급의 문인들이 유럽화 문예를 통해 당시 무산계급에게 중법주의와 브로커주의를 내면화하도록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무산계급이 자산계급과 봉건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원래 프로문예는 노동자계급에 한정된 문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사회는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농민이나 병사 등과 같은 구성계층 상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소위 노동자계급은 사실 소자산계급, 즉 농민계급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들이기도 했다. 프로문예와 상대적으로 대중문예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계급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에게 열려 있는 문예라 할 수 있다. 대중문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개인이나 일 계급이 문예를 독점하는 것을 반대했다.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근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좌익문예계의 인사들에게는 1930년대 엄혹한 중국의 현실에서는 대중문예를 통해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과의 싸움을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추바이가 제기한 '프로대중'문예는 특정 계급의 영도(領導)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주체로서의 '대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추바이는 프로대중문예는 자산계급이나 매관계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대중의 이야기를 프로대중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대중문예의 문제(大衆文藝)>에서 혁명적 대중문예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프로대중문예의 내용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그는 혁명적 대중문예, 곧 프로대중문예란 '문화혁명과 문학혁명을 발동하는 문예'로서, 혁명의식으로 지주자산계급의 영향 하에 있는 '대중을 노동자계급이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했

다. 이를 위해 대중의 언어로, 그들이 익숙한 형식, 곧 옛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명전쟁의 상황을 알리고, 혁명의 적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폭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¹⁵⁾ 곧 프로대중문예, 혁명적 대중문예는 대중에게서 멀어진 자산계급 등의 유럽화 문예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세우고 그들에 다가서는 문예라 할 수 있다. 이때 혁명은 당시로서는 '진정한' 민권혁명의 달성을 포함한 것으로, 자산계급이 아닌 그들로부터 타자화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중이 정치적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취추바이는 이 같은 혁명의 달성을 위해 대중의 언어와 방식에 유념하면서 대중이 자산계급과 매판계급의 사고를 내면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취추바이의 프로대중문예는 혁명 주체의 외연을 확장시켜 자산계급과 매판계급을 대신할 주체로서,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도시빈민 등 대중을 호명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의 영도 하에 자산계급 등 지배계급의 사고와 논리를 대중으로부터 탈각시킴으로써 대중을 혁명의 실천자로서 자리매김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3. '프로대중문예'의 내재적 문제

국민당 주도로 전개되었던 민권혁명은 자산계급만의 민권혁명으로서 지배계급 간의 타협과 대중에 대한 배신으로 파국을 맞았다. 취추바이는 이를 대신해 사회혁명의 과정에서 민권혁명이 자산계급만이 아니라 기타 대중의 정치적 발언과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권혁명으로 실현되길 바랐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지주신사계급의 영향력 아래 있던 농민 등 기타 계급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취할 필요가 있었다.¹⁶⁾ 취추바이는 그 수단으로 프로대중문

15) 瞿秋白, <大衆文藝的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第3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12-21쪽 참조.

16)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에서 북부의 노동자계급이 남부의 농민계급과의 연대가 필요했던 상

예를 제기하였다. 이때 프로대중문예는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것이면서, 또 '진정한' 민권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취추바이가 제기한 프로대중문예가 자산계급에게 익숙한 언어와 형식이 아닌 대중이 익숙한 언어와 형식을 사용하되, 그 안에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대중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⁷⁾

황과 흡사했다. 그람시는 서발틴의 개념을 제기해 이것을 실행했는데, 서발틴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존재였다. 서발틴은 자산계급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그것은 자산계급이 아닌 노동자가 서발틴을 전취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람시의 서발틴 개념에 대한 것은 김현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그람시의 개입>, 《서양사론》 제140호(2019) 참조.

17) 이러한 취추바이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언급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예문제 내부에는, 똑같이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자산계급 민권혁명의 임무를 완성하려고 한다”면, 대중의 역량을 준비하고, 단결시켜 “사회주의 혁명으로 즉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임무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프로대중문예는 사상상, 의식상, 정서상, 일반적인 문화문제상, 무산계급과 노동민중—수공업노동자, 도시빈민, 농민대중—을 무장시켜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우면서 위대한, 장기간에 걸친 전투이다!……

5·4 시기의 문화혁명 은 소위 “백화문”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자산계급 민권혁명 중 일반적인 문화혁명의 임무이지, 당연히 협의의 문화혁명은 아니다. 이 문화혁명은 또한 1927년의 혁명처럼 실패해, 그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도 밥도 아닌 신식 백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이 5·4식의 백화는 여전히 사대부의 독점물이라는 데서 이전의 문언과 일치한다. 현재 신식사대부와 평민 백성 사이에는 여전히 “공통의 언어가 없다.” 혁명당 내 “학생 선생”과 유럽화된 신상들이 사용하는 서면상의 말이 일종이고, 브로커소시민들이 사용하는 서면상의 말이고 또 다른 일종인데, 이 두 말의 구별은 두 민족의 언어 사이의 구별과 맞먹는다. 17,8세기 러시아에서 유럽화된 귀족은 슬라브문의 전적과 프랑스문의 소설을 읽었지만, 평민은 러시아문을 읽었다. 현재 중국의 유럽화된 청년들은 5·4식 백화를 읽지만, 평민들은 장회체의 백화를 읽는다. 중국은 아직도 다시 한번 문자혁명이 필요하니, 곧 러시아의 로모노소프에서부터 푸시킨 시대까지의 그러한 문자혁명 말이다. 그렇지 않다. 혁명적 지식 분자와 민중 간에는 공통의 언어가 없으나 상점에서 장사하는 사장과 회계학도 사이에는 공통의 언어가 있다. 이 문자혁명의 임무는, 지금 똑같이 무산계급이 영도해야 한다. 자산계급은 더 철저한 문자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게다가 여전히 이런 혁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 민중에게 이것은 너무나 낯선 것이다. 프로문예는 지금 전력을 기울여 모더니즘의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상중하 세 등급의 토요일과는 오히려 교묘하게 구식 대중문예 체제를 운용하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특별 개량”하여, 이런 형식에 유신의 봉건도덕, 자산계급 민족주의적인…… 내용을 집어넣어,《불타는 홍련사(火燒紅蓮寺)》 같은 “대중문예”를 지어냈다. 그러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문예는 이러한 체제상, 형식상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자산계급 민권혁명을 완성하는 임무를 이해하지 못한 오류이다.” 瞿秋白, <普洛大眾文藝的現實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 第1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464, 465, 471쪽.

취추바이는 당시까지 중국에서 발전해왔던 5·4이래 문예의 ‘유럽화’를 ‘비대중’¹⁸⁾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유럽화란 결국 자산계급에 한정되는 것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확장된 대중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화 문예, 곧 5·4 이래의 현대문학은 유럽화된 사대부, 즉 자산계급, 봉건군벌과 신사계급, 지식인들의 옛 ‘문예’의 시와 문장을 모더니즘의 ‘신기하고 기괴한’ 체제로 바꾸었을 뿐이었다.¹⁹⁾ 그 형식은 바뀌었으나, 그것을 통해 선전되고 교육되는 것은 자산계급 등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였다. 게다가 앞 절에서 이야기했듯, 취추바이는 소위 혁명문학도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이야기했지만, 낯선 언어와 형식으로 자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유럽화 문예를 좇고 있다고 생각했다. 취추바이가 제기한 프로대중문예는 이와 달리 구식 체제의 고사소설, 가곡소설, 가극과 대화극과 같이 ‘체제가 소박한 작품으로, 구두문학과 가까운 작품’²⁰⁾이었다. 작품의 구두언어는 대중들의 언어이고, 소박한 작품 속에는 대중들의 소박한 삶이 담겼다. 이것은 대중으로부터 떨어진 유럽화 문예나, 지식인의 호명에 그친 채 여전히 유럽화 문예를 따랐던 혁명문예와는 다른 것이었다.

취추바이는 프로대중문예에 해당하는 것을 ‘고취하는 작품(鼓動作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작품’, ‘인생을 이해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보았다. ‘고취하는 작품’이란 표어식으로 그 수준은 낮을 수 있을지언정 위급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작품을 의미했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작품’은 일반적인 계급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계급의 생활을 묘사하고, 빈민, 농민, 병사

18) 유럽의 자산계급문예는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반대증적인 자산계급의 특성에서 본다면, 역시 반대증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추바이는 유럽화문예를 반대증이 아니라 비대중적이라고 했다. 이것은 적어도 5·4 이래의 유럽화문예를 대중과 함께 할 수 없는 적대적인 문예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추바이는 중국혁명의 한 축은 여전히 자산계급 민권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노동자계급 등 무산계급은 이것을 철저히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것은 문인뿐 아니라 자산계급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19) 瞿秋白, <普洛大眾文藝的現實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 第1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470쪽.

20) 같은 책, 471쪽.

의 생활과 그들의 투쟁을 묘사하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작품의 주요 제재는 노동대중의 생활과 투쟁, 파업, 유격전쟁, 토지혁명 등이었다. 동시에 이런 작품을 통해 소자산계급, 자산계급, 신사지주계급의 모든 추악함, 모든 잔혹하고 교활한 착취와 억압의 방법, 모든 출로 없는 상태,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현상 등도 무산계급의 입장에서 폭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위한 작품'은 자산계급과 지식인만의 것인 양 이야기되는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대중문예로, 취추바이는 이 안에서 지주 및 자산계급의 인생관에 속박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개인사, 연애사, 중범사회의 희생, 가업의 환상과 같은 다양한 삶을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²¹⁾ 취추바이가 말한 프로대중문예의 작품들은 중국 사회 내 다양한 계급의 생활 자체를 제재로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사계급이나 자산계급 지식인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인생'의 문제와 같은 것을 다루는 작품들이었다. 한마디로 프로대중문예는 소수 지배자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세계관만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주변화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통로라 할 수 있다.

미놀로는 인식적 특권을 후마니타스 자신에게만 있고, 안트로포스²²⁾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서구의 논리를 부정하고 주변화된 안트로포스들이 그들의 존재와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곧 탈식민성이라고 이야기했다.²³⁾ 그의 말을 따르자면, 주변화된 이들, 타자화된 이들이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각자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탈식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취추바이는 자산계급 등 지배계급의 물질적 착취와 정신적 왜곡으로 인해 주변화된 프로대중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으로

21) 瞿秋白, <普洛大眾文藝的現實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472-475쪽 참조.

22) 후마니타스는 라틴어로 인간에, 인간에 대한 박애로 말할 수 있고, 안트로포스는 희랍어로 위를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말이다. 후마니타스는 인간을 중심에 두는 르네상스 이래의 유럽의 가치관이 형성된 인간이다. 미놀로는 서구 근대를 15세기 이래로 보는 바, 후마니타스는 서구 근대에 부합하는 문명적 인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안트로포스는 후마니타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야만적인 인간으로 지칭된다. 후마니타스는 생각(인식)할 수 있기에 존재하는 이이지만, 안트로포스는 생각할 수 없기에 존재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다.

23) 윌터 D. 미놀로,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서울: 현암사, 2018), 194-202쪽 참조.

서 프로대중문예를 제기했다. 그것은 지주 자산계급의 인생관에 속박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개인사, 연애사, 종법사회의 희생, 가업의 환상과 같은 다양한 삶이, 대중의 살아 있는 언어로, 대중에게 익숙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문예이다. 그것은 유럽화된 후마니타스인 자산계급에 대해 그들로부터 주변화된 안트로포스로서의 대중이 자신의 인식론으로 세계를 보아야 하고, 또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변화된 주체가 중심의 영향에서 벗어나 왜곡되지 않은 다양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이다.

그런데 취추바이가 본 프로대중문예란 정서적으로 계급투쟁의 대오를 통일 단결시키고, 의식과 사상에 있어서 소위 인생관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²⁴⁾ 문예였다.

프로대중문예의 투쟁의 임무는 사상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의식상에서 무산계급화 시키는 것이며, 청천백일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5·4시기의 반 예교 투쟁은 지식인에 한정된, 자산계급의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적 문예운동이었다. 우리는 '무산계급의 5·4'가 필요하다. 이것은 옹당 무산계급의 혁명주의적, 사회주의적 문예운동이고, 바로 청천백일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청천백일은 소위 청천 아래의 나리 주의이다. 헝궈와 검궈는 청천의 나리로서 소위 조국민족 또한 청천의 나리이다. 헝궈주의가 이와 같고, 브로커주의가 이와 같고, 모든 반혁명적 독단적 선전이 모두 이와 같다.²⁵⁾

그는 이처럼 자산계급과 그들의 대표자인 국민당의 사상을 청천백일주의로 지칭하면서, 그것이 봉건세력의 종법주의와 자산계급의 자본주의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르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대중을 배제하고 그 속에 대중의 이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추바이에게 5·4 이래의 문예는 이 자산계급의 청천백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취졌다. 이것을 극복하고 대중의 대오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것과는 다른 사상과 이상으로

24) 瞿秋白, <普羅大眾文藝的現實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472쪽.

25) 같은 책, 475쪽.

대중을 교육해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각성은 주체 스스로가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각성하는 것, 곧 '자각'은 아니었다. 취추바이가 필요하다고 본 '무산계급의 5·4'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자산계급의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적 문예운동을 무산계급의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적 문예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다. 여기서 초점은 '무산계급'이 아닌 '계몽'을 향해 있었다. 이로 인해 '무산계급'의 각성은 스스로의 각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교육에 의한 각성이며, 주체는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호명되어야 했다. 취추바이는 프로대중문예의 작품들이 특정한 목적 하에 창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그 목적이란 곧 프로대중의 대오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취추바이는 프로대중문예를 통해 노동자, 빈민, 병사 등 다양한 대중 주체를 호명했지만, 이렇게 호명된 주체와 관련한 프로대중문예의 역할은 프로대중을 조직하기 위해 그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으로 제한되어 버렸다. 여기서 대중은 결국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이라는 호명자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호명은 지배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을 위한 투쟁을 통해 자산계급의 지배는 노동자계급의 지배로 바뀌지만 이에 앞서 전위를 자처하는 이들이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호명하게 된다. 결국 국가의 수립을 위한 호명 속에서 주체는 여전히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주체란 국가의 건설과 보위의 주체로 호명되는 대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취추바이는 프로대중문예의 임무에 사회주의 종주국(즉 소비에트러시아)의 수호를 포함시키기도 했다.²⁶⁾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가 경제적

26) "5·4 후 지금 혁명은 바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세계와 중국의 모든 역량은 거대하고 격렬한 전투 가운데 있다. 5·4시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먼저 국제주의를 호소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중국의 '민족성인'은 조급해졌다. 그는 큰소리로 민족주의는 먹고 사는 도구이지만, 국제주의는 믿을 수 없는 복권이라고 외쳐댔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국제주의의 국가는 이미 경제적으로 극성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노동민중은 진정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으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켰으며, 모든 제국주의의 진공하려는 시도에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주의의 실질—저항하지 않는 노예주의는 거짓 저항의 투항주의로서 먹고 사는 도구일 뿐이다. 때문에, 모든 제국주의가 '국제주의의 국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때에, 중국의 민족주의도 서둘러 만저우(滿洲)를

으로 극성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노동민중 역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고, 착취까지 소멸시켰다고 말하며, 이 소비에트러시아를 중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로 제시했다. 소비에트러시아는 제국주의와는 다른 체제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적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서구 근대성을 극복한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소비에트러시아의 보위에 함께하는 것을 중국에서 사회주의국가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던 것이다.

<프로대중문예의 현실문제>에서 취추바이는 “이것(프로문예)은 자유의 문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문예는 배부른 아가씨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뇌와 빈민으로 뒤룩뒤룩 살쩍 수만의 고등 인물들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수백 만 수천 만 노동자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가 국가의 정화이고 힘이고 미래이니”²⁷⁾, “프로문예가 ‘자유’의 문예가 되려면, 새로운 역량과 경신의 역량을 이러한 문예의 대오로 가져와야 하니, 절대 탐욕과 명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이상과 노동자에 대한 동정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와 같은 레닌의 말을 인용했었다. 취추바이는 이 인용을 빌려 프로문예는 이런 자본주의화된 유럽의 물질적 욕망과 세속적 명성을 좇지 말고, 자산계급과 귀족계급에 복무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에 복무하는 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본 프로대중문예의 성격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존재와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유럽의 물질적 욕망과 세속적 명성을 좇지 말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소비에트러시아는 물질 생산력의 증가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와 경쟁하고 있었

그들에게 주어 전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중국의 노동민중은 이러한 매국적 민족주의를 용인할 수 없고, 이러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노동민중을 도살하는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 중국의 대중은 제국주의가 소련으로 진공하는 전쟁을 반대하고, 중국을 분할하는 전쟁을 반대하며, 군벌의 전쟁을 반대한다. 그들은 오로지 국제주의의 기치 아래 혁명적인 민족전쟁을 전개한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고 있다.” 瞿秋白, <“五四”和新的文化革命>, 《瞿秋白選集·文學編》 第3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28-29쪽.

27) 瞿秋白, <普羅大眾文藝的現實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 第1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461쪽.

고, 제국주의의 위협을 전제로 사회주의조국의 건설과 보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느 근대민족국가의 욕망과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추바이는 분명 이러한 소비에트러시아를 중국 사회주의혁명의 모델로 삼고 있었으며, 또 그 보위를 국제주의의 이름 아래 중국 무산대중의 임무로 요구하고 있었다.

취추바이의 프로대중문예와 관련된 주장은 '대중'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것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주체로서의 무산계급이나 대중은 여전히 특정 목적 하에 호명될 뿐이었다. 그 목적은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이었다. 당시 혁명을 영도하는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 역시 살아 있는, 구체적인 계급이 아니라 특정 목적 하에 호명되고 추상화된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은 타자화되고 주변화된 이들의 구체적 삶과 주장이 추상적이고 역사적인 거대한 서사로 쉽게 대체되게 만들었다. 제국주의와 매관세력, 그들과 타협한 자산계급의 논리를 대신에, 또 다른 호명자로서 공산당과 좌익의 추상화된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문제로 돌아가 버린다. 취추바이가 주장한 프로대중문예는 노동민중의 가정생활, 연애문제를 묘사할 수도 있고, 지주계급을 묘사²⁸⁾하여 대중에게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노동민중을 쟁취하고 지주자산계급에 타격을 입혀야 하는²⁹⁾, 호명자의 특정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취추바이가 프로대중문예 속에서 중요하게 인식했던 문학의 언어문제나 민간의 구두문학 작품과 같은 형식과 체제의 문제는 타자화, 주변화된 이들이 세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변화된 대중의 삶의 이야기가 발언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혁명문학에서 문예대중화로 이어지면서 프로대중문예가 광범위한 대중 주체라는 주체의 외연의 확장을 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 주체의 실천 내용과

28) 같은 책, 462쪽.

29) 瞿秋白, <大衆文藝的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第3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19쪽.

목표를 대오의 조직, 사상적 각성, 선전선동과 같은 계몽적 각성과 추상화된 목적의 실천에 한정시킴으로 인해, 대중 주체는 계몽의 대상이나 국가건설의 수단으로 묶여버리고 자발성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이자 조직의 대상이 되어 실제로는 자신의 요구를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취추바이의 프로대중문에 속의 '프로대중'은 미래의 이상에 의해 규정되고 상상된 존재인 까닭에 그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들의 다원적 삶과 목소리가 희석화된, 특정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중심에 귀속된 존재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대중문에는 호명된 주체의 조직을 위한 선전선동, 곧 교육의 문제에 매몰되고 대중 주체의 능동적 자기 발언의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4. 결 론

취추바이는 4·12정변 등 급박한 당시의 정세 하에서 중국 혁명의 성격이 전환되던 시기에, 혁명의 전환을 기존의 중국에서 추진되었던 근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극복과 연결시켰다. 그는 우선 기간의 근대를 유럽화, 즉 서구화 근대로 규정하고, 그 핵심적인 문제가 곧 주체의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자산계급이 매판계급 및 제국주의와 타협해 여타의 계급과 계층의 대중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자산계급이 민권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고 대중을 배신하고 대중에게서 멀어졌다고 본 취추바이는 자산계급이 배신한 민권혁명은 자산계급에게 배제된 이들이 각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지배적 위치에 설 때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과 그 밖의 계급이 협조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로 무산계급을 포함한 프로대중을 제기했으며, 프로대중문의 임무로 프로대중에게 익숙한 언어와 형식으로 프로대중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대중의 이데올로기를 각성하고 무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취추바이가 제시한 프로대중문예는 기간의 서구화 근대가 지닌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당시의 좌익문학 혹은 혁명문학 내의 문제까지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서구화란 결국은 특정한 계급이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소수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주변화되고 있었다. 취추바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화되는 존재를 주체로 호명하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대중문예를 제기했다. 그는 프로대중문예라는 장에서 주체로서 프로대중이 스스로의 언어와 방식으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 사회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혁명의 인식으로 인해 프로대중 주체의 문제와 프로대중문예의 내용과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 대안적 양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근대성이 지니는 식민성의 문제가 그의 논의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프로대중은 주체로 호명되면서 자발성을 잃게 되었고, 프로대중문예 속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파대상, 국가 건설과 보위의 동원대상에 머무르게 되었다.

문예대중화에서 주체, 언어, 형식의 문제는 각 주체가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정치적 의미와 연결하여 사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닌 호명이었다. 호명은 호명자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호명자는 주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호명자는 자신들의 지배를 재생산하기 위해 호명을 이용한다. 호명자의 목적은 정치권력의 획득과 국가의 수립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 하에서 호명되는 주체는 여전히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취추바이의 프로대중문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반성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호명은 종속성의 재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근대의 문제, 식민성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마르크스주의가 대안적 근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상황 역시 이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瞿秋白, 《餓鄉紀程》,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赤都心史》,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普洛大眾文藝的現實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革命的浪漫諦克>,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歐化文藝>,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自由人”的文化運動>, 《瞿秋白選集·文學編》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大眾文藝和反對帝國主義的鬥爭>, 《瞿秋白選集·文學編》第3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上海戰爭和戰爭文學>, 《瞿秋白選集·文學編》第3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大眾文藝的問題>, 《瞿秋白選集·文學編》第3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五四”和新的文化革命>, 《瞿秋白選集·文學編》第3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_____, <再論大眾文藝答止敬>, 《瞿秋白選集·文學編》第3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 솔, 1994.
- 윌터 D. 미놀로, 김영주·배윤기·하상복 역,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서울: 현암사, 2018.
- 홀거 지이겔, 정재경 역, 《소비에트 문학이론》, 서울: 연구사, 1988.
- C. V. James, 연희원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서울: 녹진, 1990.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유토피아의 환영》,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Liu Kang, *Aesthetics and Marx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0.
- 김진공, <현대 중국의 文藝大衆化를 보는 관점에 대한 재검토>, 《中國文學》第42輯, 2004.
- 김언하, <<혁명문학> 운동의 논리와 그 의미>, 《중국어문학》 18권0호, 영남중국어학회, 1990.

- 김헌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그람시의 개입>, 《서양사론》 제140호, 2019.
- 성민엽, <중국 혁명문학과 민족형식 논쟁>, 《실천문학》 1985년 봄호, 1985.
- 林春城, <中國 文藝大衆化 論爭(1930-1932)의 展開過程 및 爭點에 대한 評價>, 《中國 研究》, 中國問題研究所, 1992.
- 박자영, <혁명, 노동, 지식 — 1920년대 상하이의 혁명문학 논쟁 재론>, 《사이間SA I》 16호, 2014.
- 장윤미, <노동자 조직의 역사와 변화>,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서울: 책과 함께, 2021.

< Abstract >

A Study on Qu Qiubai's 'Proletarian Mass Literature'

Lee, HyunBok

At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nature of the Chinese revolution, Qu Qiubai connected the transition of the revolution with reflection and criticism of the existing Chinese modernization. He defined the existing modernization as westernization, and recognized the core of problems as the subject. Chinese bourgeoisie compromised with the comprador class and imperialist to marginalize other classes. He believed that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existing modernization could be overcome when those excluded from bourgeoisie awakened and took a dominant position on their own. He proposed the proletariat including the working class as the subject of the revolution, and also suggested that the proletariat freed from the ideology of the bourgeoisie to awaken and arm with the ideology of the masses. He expected that the proletariat mass would be able to tell their own stories in their own language and their own way. However, due to the perception of the socialist revolution based on his experiences in Soviet Russian society, Qu Qiubai failed to develop

an alternative in the problem of the mass subject and the content and role of the proletarian mass literature. The coloniality of Western modernity still remained in his discussion. The proletariat mass lost their spontaneity as they were interpellated as the subject and in the proletarian mass literature, they remained the targets of the propagation for socialist ideology and the mobilization for building and protecting the state. The interpellation is conducted by the interpellator and the interpellator calling name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subject. The interpellator use interpellation in order to reproduce their dominance. The goal of the interpellator was to acquire political power and establish the state. The subject interpellated under these political intentions are still dependent. If we do not reflect these problems, which can be found in Qiu Qubai's proletarian mass literature, the interpellation cannot be out of the limit of reproducing dependency.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modernity, coloniality, has not been overcome. Due to this situation, Marxism in China failed to advance to an alternative modernity.

Key Words: Qu Qiubai, Proletarian mass literature, Revolutionary literature, Modernity, Westernization, Coloniality, Marxism, Bourgeoisies, Proletariat, Interpellation, Marginalization, Subject, Dependency

투 고 일: 2022. 08. 31.

심 사 일: 2022. 09. 07. - 09. 22.

게재확정일: 2022. 10. 02.